

## 중국 자회사 과실송금 시 발생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Q**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 제18조의2)과 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세 제57조)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국 자회사에 대한 과실송금 진행 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은 100분의 95까지 익금불산입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때, 중국에서 원천징수 한 금액은 제18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해당되어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때의 수입배당금액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규정된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만 해당되는데, 과실송금금액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 판단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외국법인세액인 경우 적용되는데 귀사가 국외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항목이 명확하지 않는데 외국법인세액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교육 제공시 계정처리 문의

**Q**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해외법인의 현지 채용인력 십 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당사 사업장에서 당사의 직원들이 제품생산, 품질관리, 시험장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2.5개월 동안 실시 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을 담당한 직원들의 임월에 교육시간을 적용하여 해당비용을 현지의 법인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정과목을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게 적합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1안 : 당사는 기술료 수입이라는 회계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열티, 고객사로부터 받는 개발비용 등을 이 계정을 사용했는데, 금번 해당인력도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므로 기술료 수입(매출)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2안 :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제품생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

수하는 교육이라 영업 외 수입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A** 일시적으로 발생된 교육제공용역에 따른 수입은 매출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미수금이 크게 하나 있는데, 법원인가 회생채권이라 8년동안 변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받은 바 없고, 관련된 회생인가 변제계획 관련된 서류만 있지 사실 회생채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서류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몇억을 그냥 손놓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서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건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미변제 되는건 귀속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대손처리는 신고사항인지 결산사항인지 애매하네요.

**A** 법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불능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제계획이 있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처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아예 면책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수노력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일반 채권처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